

블레셋인들의 기원에 대한 두가지 설명들

블레셋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에서 이주하였다는 설과, 육상을 통해서 왔다는 설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Barako, Tristan and Yasur-Landau, Assaf, "Philistines upon the Sea,"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9[2], 2003.

1. 바다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Barako)

"아주 잘 건조된 전투선들로 구성된 무적함대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 그리고 다른 해양민족들이 레반트의 해변에 도착하였다. 동시에 소들이 끄는 수레들이 팔레스타인 전사들과 여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왔다. 이와같은 해상과 육상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강력한 공격때문에 가나안의 마을과 도시들이 파괴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Medinet Habu**에 있는 파라오 람세스 3세의 묘실에 남겨진 것입니다. 20대 왕조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3세는 그의 통치 18년되던 해에, 이 해양민족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전에 이들을 물리쳤다고 기록했습니다 (1176 BCE).

성서는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아쉬돗, 아쉬켈론, 예글론, 갓, 가자와 같은 남쪽 해안 평야의 견고한 5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의 거주하였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부터 왔는지, 무엇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삼상 6:3-4, 17). 성서를 기록한 이들은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나,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기에, 학자들은 블레셋인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블레셋인들과 다른 해양민족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으면, 그들의 고향은 에게해 주변이었다.
2. 그들은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람세스 3세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3. 그들은 전쟁포로나, 고용된 용병으로 가나안에서 수비대의 임무를 하고 있었다.
4. 강력한 힘을 가지게된 이후에,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하고, 가나안의 남쪽 해안 평야지대에 도시를 건설하였다.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위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식의 채색된 도자기들이 블레셋의 수많은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특별히, 아쉬돗, 아쉬켈론, 에글론 (Tel Miqne) 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자기들은 가나안 지방에서는 유례없는 전혀 새로운 도자기의 형태입니다. 이 도자기의 유형은 철기가 시작이 되는 1175 BCE의 것이며, 그 형태나 장식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에게해를 중심으로한 주변 지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의 모양은 그리스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널리 수출되던 형태와 장식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종교제와의 연관된 독특한 건축형태 역시 그리스 지역에 블레셋인들이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별히 에글론에서 발견된 성소의 기둥형태는 미케네의 전형인 Megaron style과 아주 유사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에글론의 통치자의 이름은 Ikausu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 "Axaios"에서 기원한 것으로, 에글론의 통치자가 그리스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전에서 예배를 받는 여신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은 자음으로 Ptgyh 인데, Christa Schaefer-Lichtenberger에 의하면, 이 신의 이름은 Pytogayah이며, "Pytho에서 숭배되는 여신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인들이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블레셋 지역에 발굴되는 그리스식 토기와 유물들이 블레셋인들이 가나안에 이주한 것의 증거가 아니라, 해양 상인들을 통한 무역의 결과로 그리스식 토기들이 가나안 지방에 유입되고, 그

건축물의 양식이 수입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의 Ashmolean Museum의 Susan Sherratt인데, 이러한 주장은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우가릿 문서들은 이 해양민족들이 배를 잘 다루는 선원과 해적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arako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동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육상으로 통한 길보다는 바다를 따라 배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해양민족들이 가나안으로 왔을까요? 이것을 추측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5대 도시의 크기와 고고학 발굴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블레셋의 다섯 도시는 대략 180 에이커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에이커당 합리적인 거주인원을 100명으로 환산하면, **약 18,000명의 블레셋인들이** 당시 이 5대 도시에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된 가나안 원주민들의 수를 제외하고, 약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주해왔다고 양보하더라도, **약 10,000명의 해양민족들(블레셋인)**이 이주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터키 연안에서 발견된 당시의 배의 크기를 보면, 약 15톤급의 배로 블레셋인들이 이주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청동기 시대, 예게의 배들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좌우 각각 25개, 그러니 총 50명의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 100척이나, 그 이상이 되는 블레셋 함대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가릿의 문서에 의하면, 우가릿의 군대 지휘관이 해양민족 (블레셋) 150척의 배를 맞서 싸우기에 왕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글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0척의 함대가 가나안 땅에 상륙했다고 친다면, 노젓는 사람만도 5,000명에 100톤이 넘는 화물들이 동시에 상륙할 수 있는 것이지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는 가나안 지방까지 일일이 챙기기에는 힘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민족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게 지방에서 해상으로 이주하여 가나안의 남쪽 해안 평야 지방을 1175 BCE 경에 점령하였다는 것이 Barako의 주장입니다.

2. 해안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 (Yasur-Landau)

육상을 통해서 블레셋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는 Yasur-Landau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1200 BCE 경에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는 해상을 통한 가나안 정착과 그 출발은 같습니다. 그런데, 미케네 문명 기원설과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뒤, 이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배를 타고 이주하였다면, 분명히 블레셋의 도시에서는 그리스 문명이 멸망할 당시인 **Helladic IIIB**의 도자기들이 나타나야한다. 그러나, 이 형태의 도자기들의 가나안 지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그들의 건축물 역시 그리스 식의 거대한 돌들을 올려 쌓은 미케네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3. 발견되는 대부분의 도자기들은 후기 **Helladic IIIC** 시대의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식의 조직화된 건축양식들은 그 이후 시대에 건축된 것이다.

이러한 반박에도 **블레셋인들의 기원에 대한 대세는 그들이 미케네 문명의 멸망과 함께 예게해 주변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상을 통하여 블레셋인들의 가나안 땅 이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12000 BCE에는 미케네, 예게 문명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나톨리아와 시리아 지방역시 같은 역사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민족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면서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이 육로를 통하여서 가나안 지방으로 대거 이동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해상을 통해서 이동하는 데에는 많은 돈의 지출이 필요하고, 그 수도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십자군들도 대부분의 대규모의 군대와 여행객들을 해상이 아니라, 육로를 통하여서 이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해양민족들이 아나톨리아를 거친 육로를 통하여 이동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번째로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1200 BCE 당시 이들의 이동을 막을 만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지중해 연안 지역(레반트)에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미케네 처럼 문명의 종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트로이도 멸망하였고, 서아나톨리아의 아르자와 역시 멸망하였습니다. 중앙 아나톨리아의 타르훈타싸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인 실리시아

왕국이 멸망하였고, 그 수도인 타르수스가 불탔습니다. 이와 함께 우가릿 역시 멸망하였습니다 (1190-1185 BCE). 이로써 유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해안의 길들의 전부 열린 셈입니다.

두번째로, **Medinet Habu**의 비문에 의하면, 해양민족(블레셋 사람들)이 육상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전 벽화와 함께, 육상전 벽화도 함께 있습니다.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들 배의 특징은 전형적인 전투선이지, 여행객이나, 짐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 아닙니다. 이 배에는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 노약자와 같은 사람은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벽화에는 군인들만이 그려있고, 여자들이나, 노인들과 같은 일반인들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육상전을 그린 벽화에는 어인들이들과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탐을 하는 전초병들을 보내기 마련이지요. 바다길에 익숙한 해양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주하기 위해서 육로보다는 훨씬 빠른 바다길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탐보고가 이주에 불씨를 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정탐활동이 곧 이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대단위의 이주는 육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Yasur-Landau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블레셋인들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에게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번창하던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뒤, 그리스인들 (해양민족)이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